

영화의 열린 결말과 불가해성: 코엔 형제의 영화를 중심으로

Open Ending and Incomprehensibility in Film: Focused on the Films of the Coen Brothers

장우진
아주대학교

Chang Woo-Jin
Ajo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코엔 형제 영화의 열린 결말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열린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서사 논리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바튼 핑크>(199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 <시리어스 맨>(2009) 등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영화들은 모두 '불확실성'에 관한 영화이다. 이 불확실성은 부조리하고 아이러니컬한 세상의 불가해성과 그것에 대한 캐릭터의 이해 불능으로 나타난다. 코엔 형제의 영화들은 바로 이러한 세계의 불가해성에 대한 논증의 내러티브이며, 이들의 열린 결말은 플롯과 논증의 중층 구조에서 스토리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논증의 완결을 추구한 결과이다.

1. 들어가는 말

흔히 “결말은 관객에게 해결책이나 아니면 반드시 만족감을 가져다주어야 하는 일”로서 “영화의 흐름에서 형성된 극적인 모든 실마리를 풀”어 준다¹⁾. 그렇지만 열린 결말은 내러티브의 종결부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특정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를 관객에게 맡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객의 능동적 참여와 개입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 연구는 결말의 열린 형태가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스토리가 종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종결될 수 있다면 그 영화를 종결시키는 서사 논리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고찰의 대상은 주로 <바튼 핑크 Barton Fink>(199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Old Men>(2007), <시리어스 맨 A Serious Man>(2009) 등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영화들이다.

2.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리처드 뉴퍼트는 영화의 종결 방식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Closed Narrative Discourse	Open Narrative Discourse
Resolved Story	1) Closed Text	3) Open Discourse
Unresolved Story	2) Open Story	4) Open Text

▶▶ 그림 1. 리처드 뉴퍼트의 영화 종결 범주[2]

위의 범주에서 열린 형태의 종결은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그렇지만 그 중 어느 것에 대한 설명으로도 코엔 형제 영화의 열린 결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은 Open Story와 달리 담론 차원의 종결감을 주지 않으며, 영화가 그저 중단되고 멈춤으로 인해 놀라움과 충격을 발생시킨다. 스토리를 끝내지 않기 때문에 Open Discourse로 보기도 힘들다. 또한 해체주의 전략을 사용하여 형식적 실험을 피하는 Open Text와 달리, 이들의 영화는 불확실성 자체를 형식적으로 표면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영화는 불확실성의 주제를 스토리의 심층으로 내면화시킨다. 따라서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퍼트의 논의 이상의 심화된 작품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다.

3. 모더니티와 모던 맨의 비애

<바튼 핑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어스 맨> 등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영화들은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영화이다. 사실 닫힌 결말로 되어 있는 영화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영화 세계 전체가 대체로 그러하다. 이에 대해 미치코 카쿠타니 Michiko Kakutani는 코엔 형제의 영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The Only Certainty Is Uncertainty.”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불확실성’은 코엔 형제의 영화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부조리하고 아이러니컬한 세상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캐릭터의 무능함이다. 전자는 모더니티를 “확실성의 상실 the loss of certainty”로 규정했던 제라드 텔란티의 모더니티에 해당하고⁴⁾, 후자는 그러한 세상의 불가해성

에 직면하여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 하는 보통 사람으로서의 모던 맨이 겪는 비애에 해당한다.

세계의 불가해성과 캐릭터의 이해 불능은 코엔 형제의 영화가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다. 주인공은 자신을 둘러싼 부조리한 세계를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바톤 핑크>는 바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한 영화이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벨 보안관이 흉악해진 시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영화이며, <시리어스 맨>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한 신의 답변을 결코 듣지 못 하는 것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이해 불능의 주인공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음을 수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돌연 멈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가 끝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렇게 끝맺음에도 불구하고, 코엔 형제가 그 영화를 통해 할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영화의 종결을 이끌어내는 서사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논증으로서의 내러티브 논리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4. 논증의 내러티브와 중층 구조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영화들은 묘한 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영화의 플롯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여정을 다룬다. 코엔 형제의 영화들은 캐릭터 중심의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롯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다. <바톤 핑크>에서 바톤은 레슬링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벨 보안관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여 안톤 쉬거를 잡고자 하며, <시리어스 맨>에서 래리는 자신을 둘러싼 황당한 사건의 연속을 통해 신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은 캐릭터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들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추적해 간다. 하지만 심층의 차원에서, 이 영화들은 캐릭터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컨대,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 영화들은 사건 중심의 플롯을 전개하는 표층(서술)과 불가해성에 관련한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심층(논증)의 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 S. 채트먼은 논증을 텍스트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5]

<시리어스 맨>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 래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자신을 둘러싼 일들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신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 여정이 이 영화의 표층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 표층에서 래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여러 의문들이 그대로 남겨진다. 반면 심층의 차원에서 세계의 불가해성에 관련한 하나의 논증이 완결된다.

이 영화는 최초의 인용문 자막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일종의 대전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도입부 설화를 통해 '인간은 불확

실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소전제를 제시한다. 이후 전개되는 래리의 이야기는 소전제와 대전제에 대한 내러티브 차원의 논증이다. 그리고 두 가지는 다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인간은 세상의 불가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이다.

영화는 이렇게 논증을 완결하면, 스토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냥 내러티브를 끝내 버린다. <바톤 핑크>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톤 핑크>는 바톤이 서부의 헐리웃으로 옮겨와 그곳에서 겪는 일들 전반에 걸쳐,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 한다는 것이 드러날 때, 갑작스레 중단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구세대인 벨 보안관이 신세대인 안톤 쉬거의 범행 행적을 추적하며 그의 흉악한 범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시대 변화 앞에서 환멸과 무능함을 느낄 때 끝나 버린다.

따라서 이들의 영화가 중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코엔 형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표층이 아니라 심층이고, 스토리의 해결이 아니라 논증의 완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의 해결을 요구하는 표층의 서술 논리는 그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심층의 논증 논리에 압도당한다.

5. 맺음말

이 글은 코엔 형제의 열린 결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 왔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영화의 종결 유형에 대한 리처드 뉴퍼트의 연구 이상으로 열린 결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계의 불가해성에 대한 논증의 내러티브로 코엔 형제의 영화 세계를 파악할 때 그들의 열린 결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안 로슈/마리-클로드 타랑제, 시나리오 쓰기의 이론과 실제, p.63, 이용주 역, 동문선, 2004.
- [2] Richard Newpirt, The End: Narration and Closure in the Cinema, p.33,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5.
- [3] Michiko Kakutani, "HOLYDAY FILMS; In the Coen Brothers' Off-Kilter World, The Only Certainty Is Uncertainty", The New York Times, Nov. 05, 2000.; <http://www.nytimes.com/2000/11/05/movies/holiday-films-coen-brothers-off-kilter-world-only-certainty-uncertainty.html?pagewanted=all&src=pm>
- [4] Gerard Delanty, "The cosmopolitan imagination: critical cosmopolitanism and social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7, Issue 1, p.38, 2006.
- [5] S.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pp.26-27, 한용환/강덕화 역,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